



1. '아시아를 새기다' 활동 모습

역사 배우고 공예품 만들고 아시아 문화예술 경험 만끽

●내년 1-2월 'ACC아시아 예술체험' 운영

아시아 공예문화와 동아시아 각국의 정원문화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내년 1-2월 문화정보원B2 문화교육실1에서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2025년 ACC 아시아 예술체험'을 운영한다.

아시아 공예·정원문화 등 주제 총 12회

'아시아 예술체험'은 아시아의 전통 가치, 아시아인의 삶의 지혜 함양 등 아시아의 문화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내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후 2시 강좌와 직장인 퇴근시간을 고려한 저녁 7시 강좌가 총 12회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ACC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운영한 '아시아 예술체험' 중 교육만족도가 높았던 4개의 인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아시아 공예'에서는 아시아 권역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형태의 공예를 살펴본다. 동아시아의 옷칠 공예 중 한국 나전칠기의 역사와 기법을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문양의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해볼 수 있다. 1월8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각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아시아 정원문화'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원 문화예술과 지역의 계절성을 지닌 꽃과 소재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정원으로 재해석하는 꽃꽂이 프로그램이다. 1월15일과 2월19일 오후 2시, 오후 7시 각 15명 정원이다.

'아시아를 새기다'에서는 세계 4대 문명권에서 사용된 인장(印章)의 형태와 문자를 통해 아시아 인장이 발전된 흐름을 접하고, 인장의 구조와 용도를 알아본다. 또 자신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인장도 만들어볼 수 있다. 1월22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각 20명씩 운영된다.

'인도네시아 공예'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조염색의 독특한 기하학적 무늬나 천의 명칭을 일컫는 '바틱' 체험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류무형문화 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다. 2월5일과 12일 오후 2시, 오후 7시 각 15명 정원이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전담장은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일찍 문화로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자 '아시아 예술체험' 교육을 예년보다 빠른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ACC 문화교육을 통해 따뜻한 삶의 온기를 나누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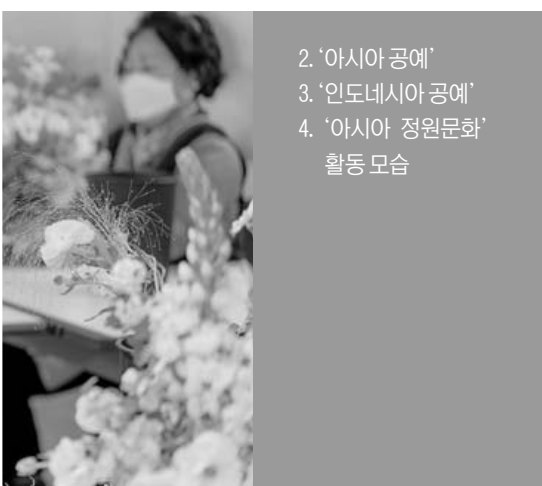
2.



3.



4.



2. '아시아 공예'
3. '인도네시아 공예'
4. '아시아 정원문화'
활동 모습

결핍·부재 속 기억해야 할 것들...

보리스 담블리&소피 델블뢰 '형그리 고스트'展

내년 1월2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개최

'유령'이라는 주제 아래 기억과 결핍에 관한 텍스트를 작품으로 펼쳐낸 전시가 마련됐다.

〈사진〉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보리스 담블리와 소피 델블뢰의 국제레지던시 2024 일한인 '형그리 고스트' 전시다.

내년 1월2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외부자가 바라본 탄핵 정국 안에서 한국 시민들이 일구는 시대적 격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은 "2차세계대전 당시 예술가들로 이뤄진 '유령부대'가 독일군을 압박하고 확전을 멈추기 위해 가짜 탱크를 만들었듯이, 이번 전시 또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발언이자 예술가들만의 고유한 참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광주에 온 작가들은 폭풍 같이 몰아친 비상계엄과 해제, 급남로 탄핵시위, 축제와 같은 집회문화를 직관할 수 있었고 무척 인상 깊게 생각했다. 텍스트일 작업 '계엄: 안귀령이 잡 아젠 총'과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 등 작품은 그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온 한국의 사회·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들의 오브제로 나타난다.

전시장 곳곳에는 이들의 경험이 중



요한 텍스트로 배치됐다. 이방인으로 서 그들이 조우하고 공감했던 광주와 한국사회에 출몰하는 정신 그리고 기억들로 채워졌다.

정현주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관장은 "전시가 이뤄지는 이곳 갤러리는 우리가 유령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변화에 연류된 경계 지점이 된다"며 "“배고픈 유령”을 의미하는 전시 제목은 사회 문화적인 '부재' 자체를 물질화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을 이야기한 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6종 특수효과...광주과학관 4D영상관 새단장

시뮬레이터 모션 시스템 등 도입

국립광주과학관 4D영상관이 리뉴얼을 완료하고 31일부터 재오픈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개선된 모션 시트는 기존 54석에서 40석으로 변경됐다. 모션 시트는 극장형 기속 시트로 업그레이드돼 넓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사진〉

특히 3층 시뮬레이터 모션 시스템을 도입해 진동·충격·바람·안개·물 분사·섬광 등 6종 이상의 특수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별 3단계 이상의 진동 강도 조절이 가능해 다이나믹한 움직임 환경을 제공한다.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4D영상관에서는 총 3개의 영상이 상영된다. 모글리의 정글 탐험을 주제로 한 '모



글리 : 정글어드벤처', 컴퓨터 과학자를 꿈꾸는 과학자 사고뭉치 맥스의 하루를 담은 '해피패밀리2: 넥스트 레벨', 지구 온난화를 이겨내는 삼 남매의 대모험 '스톰 라이더'다.

정세환 국립광주과학관 전시운영센터 연구원은 "특수영상관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알리 20주년 콘서트 '용진(勇進)' 31일 광주 공연 연기

제주항공 참사 애도 동참

31일 예정된 가수 알리(ALI)의 20주년 기념 콘서트 '용진(勇進)' 광주 공연이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공연은 알리의 음악 여정을 기념하며 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알리의 소속사와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광주 공연을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은 사

과와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애도기간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부득이하게 공연이 연기됐으며, 새로운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분들의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찾아

뵙겠다"고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용진(勇進)' 콘서트는 알리의 본명 '조용진'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난 20년 동안 그녀가 걸은 용감하고 꾸준한 음악 여정을 상징한다.

공연 일정은 새로운 날짜를 확정하는 대로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미 예매한 티켓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시내 지역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시내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시내 지역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암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